

구례군 “집중호우로 최소 568억 피해…긴급복구 한창”

중단됐던 상수도 오늘 급수 목표 임시복구 추진

화엄사 삼거리·구례교·간문회전교차로 제한 풀려

공무원·자원봉사자 등 1800여 명 동원 수해 복구

전남 구례군은 10일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해 긴급 피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집중호우 피해액을 약 568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1시 기준 민가주택 1182가구, 공공시설 11개소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421ha가 물에 잠기고 가축 3650마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구례군은 중장비 45대를 동원해 서시천 제방, 국도 17호선 서시1교 구산저수지 하류 사면, 토사 유출지 등 주요 피해시설을

응급 복구했다.

당초 7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상수도 중단은 오는 11일까지 전 지역급수 목표에 임시복구가 한창이다.

한 때 물에 잠긴 구례취수장과 섬진강정수장에 대한 배수를 완료하고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산동정수장의 급수관을 구례읍에 연결하고, 마산정수장에 임시 인수를 확보해 구례읍·마산·광의·용방면에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문척·간전면은 기존 배수 수량으로 공급 후 마을 상수도를 이

용하고 있다.

한때 통행이 제한됐던 화엄사 삼거리와 간전면 간문회전교차로, 구례-순천을 잇는 구례교 등의 제한은 풀렸다.

그러나 도로가 유실된 국도17호선의 냉천IC~문척교차로 구간과 천은사~성삼재~도계삼거리 구간 등 6개 구간이 통제 중이다.

군청·소방·경찰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긴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투입되고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수해피해지역 복구 등에 나섰다.

투입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5일 시장, 민가 주택 등에서 적치물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례읍 양정지구 민가 지붕위에 고립된 소 20마리에 대한 구출작전도 오전 9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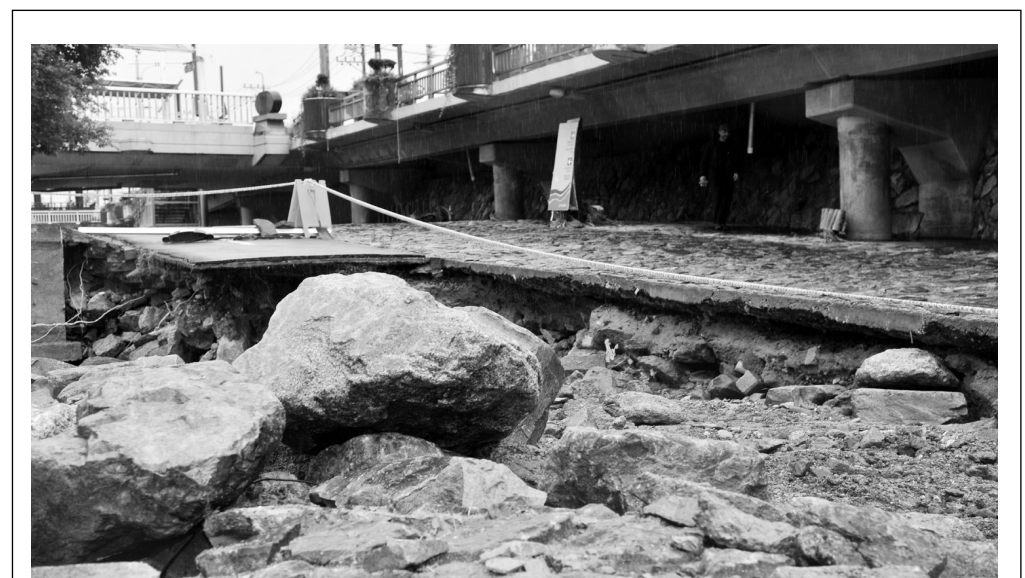
공무원, 축협직원 등 27명을 동원해 마취총으로 소를 진정시킨 후 덤프트럭 및



굴삭기 5대를 동원해 구출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대풍 장비가 북

상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600mm 물폭탄에 갈라지고 깨진 ‘광주천’

산책로·자전거도로·운동기구 곳곳 파손

“갈라지고 넘어지고 처참하네요.” 기록적 폭우가 휩쓸고간 광주 서구 양동 광주천변. 10일 오전 찾은 양동시장 북개상가 밑 광주천변은 폭풍이 지나간 듯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다.

천변 산책로 겹 자전거 도로는 곳곳이 갈라지고 무너져 지난 주말의 위태로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광주천 속 물풀과 주변 버드나무는 흠뻑 젖어 물이 쓸고 내려간 방향으로 일제히 넘어져 있었다.

통째로 뽑힌 나무가 다리와 천변 계단 등 시설 곳곳에 널브러져 있기도 했다.

평소 주변 주민들이 애용하는 운동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넘쳐나는 쓰레기와 파손된 아스팔트·자갈은 광주천을 찾은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주민 한모(56·여)씨는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가 참 처참하다. 휩쓸린 쓰레기와 무너져 내린 도로를 피해 걷느라 힘들다. 하루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던 A(39)씨는 “주 1회 이곳에서 자전거를 탄다. 오늘은 장해물을 피해 이리저리 다니고 있다. 혹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까 염려된다”며 한숨을 탄다. 산책로·자전거도로·운동기구 곳곳 파손되었다. 서구청은 이날 오전부터 장비를 동원, 유실·파손된 도로 곳곳을 정비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파손이 큰 부분부터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며 “갈라진 아스팔트를 한쪽으로 치우고 흙으로 그 자리를 메우는 등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광주·전남 산단 곳곳 침수…피해 ‘눈덩이’

광주첨단국가산단·평동산단·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침수

광주·전남지역에 연이틀 쏟아진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 공공시설물에 이어 산업단지도 침수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산업단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7~8일 광주·전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산단 내 공장 기계설비가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산단공이 관리하는 광주첨단국가산단지의 경우 지난 9일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60개사가 부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공장 안으로 물이 들어치면 각종 기계 설비를 비롯해 출하를 앞둔 완제품과 내부 사무실 집기가 침수 피해를

봤다.

역대급 폭우는 일부 공장의 지붕도 망가트렸다. 한계면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하면서 공장지붕 마감재인 샌드위치 패널과 빗물받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해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을 지적에 끼고 있는 평동산업단지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자동차 부품 협력사를 비롯해 중소제조업체 1000여개사가 밀집한 평동산단은 황룡강이 범람하면서 유입된 흙탕물에 정밀공작기계 등이 침수돼 큰 피해가 났다.

한 대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금형공작기계를 비롯해 원재료와 완제품이 오염된 물에 잠겨 폐기처리 해야 될 상황에 처한 것

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평동산단 내 월전 외국인 투자지구 입주기업들은 비교적 지대가 높아서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평동산단 관리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계자는 “주말 동안 공단 입주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10일)부터 공식 피해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황룡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지난 토요일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광주공장은 일요일인 지난 9일 복구를 마치고 이날 오후부터 가동을 정상화 했다.

대불산단과 여수국가산단이 소재한 전남지역 주요 산업단지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은 침수 피해를 입고 가동이 중단됐다. 곡성공장도 어제 응급 복구를 마치고 오후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오유나 기자

태풍 속 제주해상서 보드 탄 레저객 6명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 중인 제주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제주도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지만, A씨 등 6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날 24일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보드를 탄 20대 B씨를 적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제주도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도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해상에서 약 1시간20분 동안 보드를 즐기다 힘이 빠져 표류하던 중 해경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지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뉴스1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